

.....

해외현장연구 개인에세이

- 낯설음에서부터 익숙함으로까지

.....

아주대학교

201521619 우선아

▲ Intro しとーりぷーり 日本○ノコード

じ

해외현장연구 수업을 통해 일본의 문화 등을 조사하기 전 까지, 나에게 일본은 그저 지리상 가까이에는 있지만 별다른 관심 없는 그저 그런 이웃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가끔 내 취향의 J-POP 몇 개 정도를 듣거나 가끔 재밌다는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것이 전부였다. 물론 이마저도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추천해줘서 본 경우였다. 나는 일본어의 히라가나, 가타카나 하나 읽을 줄 모르는 소위 말해 일알못 (일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물론, 역사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해왔던 일본과 한국이기에, 많은 부분에서 적지 않게 일본 문화와 일본적 요소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었긴 했지만,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다. 그랬던 나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해외현장연구를 통해 일본을 가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서는 낯설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일본에 대해 아는 것 하나 없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주제를 정하는 것은 물론, 숙소를 고르는 기본적인 일조차 내게는 큰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이번 해외현장연구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6박 7일의 일본 현장 연구를 통해 내게 있어서 일본은 더 이상의 낯설음과 막막함의 대상이 아닌 익숙하고, 더 알아보고 탐구해보고 싶은 호기심의 나라가 되었다.

▲첫째 날 - 안녕, 니시 이케부쿠로 !



▲ 숙소 근처 릿쿄대학교로 가는 길

아침 일찍 인천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위해 혹시라도 버스를 놓칠까 출국 전날 밤

을 꼬박 새고, 긴장 반 기대 반 마지막으로 계획서를 훑어보고 공항 리무진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박성빈 교수님과 미리 약속한 약속시간에 맞게 도착은 했지만, 계획서도 인쇄해야하고, 일본에서 사용할 와이파이를 빌려야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빠듯한 것 같아 서둘러 움직였다.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 혹시라도 늦을까 조금 긴장은 됐지만 다행히 여유롭게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수업의 현장 실습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것이긴 했지만, 막상 비행기를 타니 마치 친구랑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기분이 너무 설렘. 워낙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다고 느낄 때 즈음,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였다. 2시간 걸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솔직하게 말해 조금 많이 무서웠다. 일본어 밑에 물론 영어와 한글이 써져있긴 했지만 일본어를 하나도 읽을 줄 모르는 나로서는 크게 써져 있는 일본어가 웬지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다.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숙소가 있는 이케부쿠로 역을 가기 위해 전철을 타야했는데, 교수님이나 간빠이조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앞장을 섰는데 웬걸, 전철 한번 타기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웠다. 혹시라도 표를 잘못 끊을까 봐 다른 팀 도움 없이 숙소로 향하겠다는 도전 아닌 도전을 바로 버려 버리고 간빠이조와 교수님을 졸래졸래 따라 겨우 이케부쿠로역까지 가는 전철에 몸을 실었다. 밤을 새고 온 터라 정말 피곤했지만, 전철을 타면서 보이는 한국과 다른 일본의 바깥 풍경이 너무 예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사진만 찰칵 찰칵 찍어댔다. 바깥 풍경을 구경하느라 지나가는지도 몰랐던 두 시간이 지나고 박성빈 교수님과, 간빠이조와 함께 이케부쿠로역에 도착 했다. 막상 이케부쿠로역에 도착하니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터지지 않는 와이파이를 가지고 숙소를 찾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뜻밖의 변수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손짓, 발짓 섞인 바디랭귀지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물어 물어 겨우 숙소로 도착했다. 숙소를 찾아가는 내내, 너무 피곤해서 숙소가면 조금만 누워 쉬어야지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숙소로 도착해 짐을 풀어보니 빨리 나가서 주변에 무엇이 있을지 탐방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 마구 생겼다. 문을 박차고 무작정 숙소에서 나와 주변의 릿쿄 대학교에 들어가 일본 학생들도 구경하고, 특이한 디자인의 도서관도 들어가 보았다. 나을 때쯤에는 너무 배고파서 지나가던 릿쿄 대학교 학생들에게 물어 물어 주변 맛집을 추천받아 맛있는 저녁을 해결 했다. 평상시에 좋아하는 판 메밀이 먹고 싶어, 가게 앞에 있던 자판기에서 돈을 지불해 판 메밀 티켓을 뽑아 식당 주인에게 제출 후, 기다린지 오분도 안되서 내가 원하던 판 메밀이 나왔다. 먼저, 사진과 똑같은 아니, 사진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식당의 정직함(?)에 한번 큰 감동을, 그리고 비주얼보다 더 맛있는 판 메밀의 맛에 두 번 큰 감동을 받았다. 판 메밀만 먹기에는 아쉬워 팀 조원들과 시킨 메뉴를 나눠먹고, 너무 배가 불러 소화도 시킬겸 구경도 할 겸 숙소 주변을 조금 산책하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일찍 귀가했다. 막상 다시 숙소로 돌아오니 너무 피곤해서 따뜻한 물에 샤워 후, 피곤에 찼은 몸을 침대에 그냥 날려버렸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새로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집에서 자는 것 보다 더 깊고 편하게 잠을 잤던 것 같다.

▲둘째 날 - 돗쿄 대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다

둘째 날은 박성빈교수님과 간빠이조와 함께 돗쿄 대학교 탐방 및 한국어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 돗쿄 대학교는 소카시에 있기 때문에 약속시간인 2시까지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넉넉잡아 3시간 전에는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사전에 박성빈 교수님 호텔 로비에 모이는 것으로 사전 약속을 해둔 상태였다. 우리 숙소와 교수님이 머무시는 호텔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는데, 전날에 우리 숙소 근처의 지리만 익혔던지라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찾기까지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다. 덕분에 아침을 먹지 못해 조금이라도 배를 채우려고 근처에 편의점으로 향했다. 역시나, 일본 편의점의 명성답게 샐러드부터 한 끼 식사까지 정말 다양한 도시락이 있었다. 아침이라 그런지 많이 먹으면 조금 속이 안 좋을 것 같아 브로콜리 샐러드와 녹차를 구매해서 먹었는데 두 개 모두 합쳐 350엔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사실 일본은 물가가 비쌀 것 같아 환전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가격에 비해 편의점 음식 퀄리티도 너무 훌륭했고 무엇보다 너무 저렴해서 많이 놀랐다. (사실 너무 행복했다. 이 가격에 이런 고품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대충 조원들과 끼니를 해결하고 2시간쯤 걸려 돗쿄대학교에 도착했다. 박성빈 교수님이 말하시길 돗쿄대학교 주변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도시 같은 곳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대학교를 향해 걷다보니 우리 동네가 생각나서 왠지 모를 향수가 생겼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한 10분정도 걷다보니 돗쿄대학교에 도착하였다. 늦을까봐 서둘렀던 탓인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 학식을 먹어보기로 하고, 학생 식당으로 향했다. 자판기의 나라답게 들어가자마자 다양한 음료수를 뽑아먹을 수 있는 자판기들이 많았고, 그 옆에는 메뉴를 정할 수 있게끔 음식 모형이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사실 중간 중간에 간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다지 배가 고프지 않아 우롱차만 뽑아 마셨다. 그래도 몇 조원들은 배가 고팠던지 몇 종류의 음식을 시켰는데, 정말 이런 저렴한 가격에 이런 양질의 음식을 제공해도 적자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점심을 해결하고, 시간이 되어 돗쿄 대학교 한국어 연구회 학생들을 만나러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어제만 해도 날씨가 조금 흐려 걱정이 많았었는데, 햇빛이 너무 짹짹하고 하늘도 맑아 기분이 너무 좋았다. 왠지 아주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처럼 내가 마치 돗쿄대학교 신입생이 된 것 마냥 기분이 너무 설렘다. 대략 40명의 한국어 교류회 학생들을 만나,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 질문도 해보고, 요즘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내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일본의 모든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얘기를 해보기도 하면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사실 체감 시간은 몇 시간도 안 지난 것 같았는데, 얘기를 하다보니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 몇몇 남은 학생들과 함께 근처의 회전초밥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원래는 저녁 시간에 붐비는 곳 이었는데 시간을 잘 맞춰 온 덕인지 기다림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처음 자리를 잡고, 간단한 테이블 세팅을 하는 데, 종업원이 찬물을 가져다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일본 친구가 컵을 꺼내더니 알 수 없는 초록색 가루를 담고 있었다. 처음에 그 초록색 가루가 와사비 가루인 줄 알고 식겁을 하면서 이게 뭘까 싶어 일본인 친구에

게 물어보니, 와사비 가루가 아니라 녹차 가루였다. 그 친구가 말하길, 일본 식당에 웬만한 곳에는 녹차 가루와 뜨거운 물이 항상 구비되어 있다고 했다. 일본 음식의 짜고, 단 맛을 녹차로 중화시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초밥을 즐겨 먹는 일본 답게, 저렴하고 또 양질의 초밥을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정말, 이런 저렴하고 고급퀄리티의 초밥을 언제 먹어볼까 싶어 생각없이 마구 먹었는데, 엄청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로 13000원밖에 나오지 않아 잠깐이지만 일본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를 하고, 저녁을 해결하다보니 어느새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돗쿄 대학교 학생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다시 이케부쿠로 역으로 향했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보이는 일본 저녁의 풍경이 너무 이뻐고, 웬지 모르게 일본에서 살아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 저녁 무렵의 돗쿄 대학교 정문에서 바라본 하늘



▲ 민경언니, 리사, 아사카 그리고 나. 초밥집에서 찰칵 !

▲셋째 날 - 아사쿠사에서 일본의 전통을 체험하다

셋째 날은 아침에 이케부쿠로에 있는 여성전용 도서관 LOUD를 들렀다가, 도서관을 둘러보고 도서관장님과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를 가지고 짧은 인터뷰를 진행한 후, 우에노와 아사쿠사 그리고 스카이트리를 구경하러 다이토구로 향했다. 먼저 우에노 역에서 내려 우에노 시장을 대충 구경하고 아사쿠사로 갈 수 있는 다른 노선을 타기 위해 근처의 전철역으로 다시 향했다. 날이 흐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지만 덥지도 않고 시원해서 걸어 다니기에는 훨씬 수월했던 것 같다. 다시 다른 노선을 갈아타 몇 정거장을 더 가서, 아사쿠사에 도착했다. 역시나 유명한 관광 명소답게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다. 근처에 유카타를 체험해볼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유카타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정말 진심으로 나도 유카타를 체험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 그냥 근처에서 사진만 찍고 아사쿠사 절을 탐방했다.



▲ 아사쿠사 절로 가는 길에 니지조 찰칵!

아사쿠사 절에는 사람이 정말 많아 한걸음 한걸음 떼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곳곳하게 다 둘러보고 왔다. 조원들과 함께 그 다음으로 갈 목적지인 스카이트리가 꽤 가까워 보여서 걸어가야지 하고 출발하려는데 아나나 다름까 하늘에 계속 깔려있던 먹구름이 굵은 빗방울을 기어코 내려 보냈다. 근처 편의점에서 우비를 사고, 한 30분 정도 걸려 스카이트리에 도착했다. 사실 나중에 도쿄 도청 전망대를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스카이 트리 전망대를 이용하지는 않았고, 스카이트리 백화점과 박물관을 구경했다. 중간 중간 백화점과 박물관을 찾는 과정에서 길을 잃어

일본인 분들에게 손,발짓 섞어가며 여쭙보며 길을 찾아다녔는데, 정말 한분도 빠짐없이 웃는 얼굴로 도착지까지 데려다주셔서 정말 이런 점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녁에 와서도 비가 내려서 그런지, 여러 군데로 이동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 조금 일찍 서둘러 다시 숙소로 향했다. 전철을 탔긴 했지만, 이곳 저곳 구경하고 다니느라고 너무 많이 걸었던 탓인지 피곤해 씻고 침대에 눕자마자 몇 분도 안돼서 바로 꿀아떨어졌다. 그래도 하루를 정말 알차게 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 아사쿠사절에서 보이는 스카이트리

▲ 넷째 날 - 새로운 경험, 학술제를 가보다

오늘은 가나가와대학 요코하마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한,일 공동 학술제에 참여하기 위해 정말 이른 시간인 7시 40분에 박성빈 교수님과 간빠이조와 함께 가나가와 대학으로 향했다. 처음가보는 학술제라 그런지 왠지 긴장도 되었고, 또 말로만 듣던 학술제가 과연 어떨지 하는 설렘도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3만원 정도를 주고 등록을 한 후, 우리 조가 참고할만 한 연구 주제를 하는 방을 찾아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 학교 주변을 구경하기 위해 조금 걸어 다녔는데 일본 대학생은 한국 대학교와 다르게 발레나, 미식축구 등과 같은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즐기는 것 같았다. 저번에 갔었던 돗쿄 대학교에서도 수영이나 야구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대학교 안에서도 즐기는 것 같았는데, 문득 아주대학교에서도 이런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략 6시까지 우리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 주제 발표를 듣고, 또 가나가와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해보기도 하고, 7시에 교수님들과 학술제 관계자 분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리셉션에 참가도 했다. 박성빈 교수님 덕분에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실 수 있었던 일본인 교수님들에게 일본의 최근 LGBT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라든지, 우리 조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깊고, 심도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번이 난생 처음으로 참가 해보는 학술제였는데, 생각보다 크게 어렵거나 한 점도 없었고, 유익하고 재미있어서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도 학술제 같은 것을 찾아 참여하면 정말 많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학술제 가기 전에는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이런 학술제에 참가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막상 참여해보니 내 지식과 경험이 한 단계 높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 처음 참가해보는 학술제 포럼.

▲다섯째 날 - 일본인 체험을 해보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는 오덕후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케부쿠로의 오토메 거리를 방문했다.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코믹 등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토메 거리에 올 일은 없었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 현장에 집적 가서 체험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뷰도 할 겸 오후까지 그 곳에 있었다. 사실, 조금 더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인터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몇 분만 인터뷰를 진행한 후,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의 맛집으로 향했다. 우리 팀이

선택한 점심 메뉴는 라멘 이었는데, 역시나 너무 짰다. 그래서 먹는 내내 옆에 있는 녹차를 정말 라멘 한입에 한 모금씩 마셨던 것 같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평소에 짜게 먹으면 정말 갈증이 나는데 이상하게도 점심을 먹은 후에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갈증이 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 일본인이 짜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날씬하고, 또 건강한 이유는 녹차를 자주 마시기 때문이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는 박성빈 교수님이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간빠이조와 우리팀 니지조, 이해란 조교님 그리고 먼저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셔서, 7시쯤 교수님 숙소로 향했다.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곳은 술을 3시간동안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 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술을 잘 못 먹는 터라 술 대신에 녹차, 우롱차, 그리고 오렌지쥬스만 배가 터질 때까지 실컷 먹었던 것 같다. 이 식당에는 우리 빼고는 거의 일본인 같아 보였는데, 술에 취하지 않아서 인지 일본인은 어떤 술자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박성빈 교수님과 먼저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조언 등을 듣고, 나오는 음식들을 먹다보니 시간이 꽤 빠르게 흘러가 박성빈 교수님과 이해란 조교님은 미리 들어가셨다. 간빠이조와 우리조는 웬지 다시 숙소로 가는 게 조금 아쉬워 근처 주변의 술집에서 2차 아닌 2차를 즐기다가, 새벽 1시 쯤 숙소로 향했다, 이제는 익숙해진 나의 일본 집. 니시 이케부쿠로로

▲여섯째 날 - 젊음의 공간, 시부야 & 신주쿠를 탐다

마지막 날의 전날인 여섯 째 날, 원래 계획은 하라주쿠로 가려고 했지만 도쿄 도청 전망대도 갈겸 겸사겸사 시부야와 신주쿠로 향했다. 먼저 도쿄 쇼핑의 성지인 시부야에 도착해 미리 사려고 했던 물건들을 잔뜩 사고 근처에 일본 유명 연예인들도 자주 간다는 함박스테이크 맛집에 들러 점심을 해결했다. 사실 일본 음식은 거의 내 입맛에 맞았지만 조금 짜서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이 곳은 정말 맛집답게 짜지도 않고 정말 맛있었다. 점심을 조금 넘겨서 가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친구들과 오게 되면 같이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다. 역시 가장 큰 변화가답게 봄비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피해, 3정거장 차이나는 신주쿠로 향했다. 사실, 우리 니지조 계획에 신주쿠 니초메를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저번 독협대학교와 가나가와 대학교에서 만난 학생들 모두가 신주쿠 니초메는 좀 무서운 곳이라서 한번도 못가봤다는 소리에 안전상의 이유로 신주쿠 니초메를 가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본의 성소수자의 대표격인 마츠코상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일본 사회는 한국 사회보다 성소수자가 활동하기에 좀 더 개방된 사회같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쇼핑도 하고 주변 사람도 구경하다보니, 금새 빠르게 저녁이 되어, 근처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오늘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도쿄 도청의 무료 전망대를 보기위해 다시 신주쿠 역에 들어가 도쿄 도청으로 향했다. 역시 관광 명소라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이 참 많았다. 간단하게 가방검사를 하고 45층에 올라가 도쿄 야경을 구경했는데 너무 너무 아름답고 이뻐다. 사실, 그냥 걸어다니면서 여행할 때는 건물이 너무 빼곡하게 많아서 조금 복잡하다고 느꼈는데, 막상 전망대 위에서 야경을 바라보니 빼곡한

건물과 그 건물에서 내뿜는 빛이 도쿄의 저녁을 밝혀 너무 아름다웠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으려고하니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다.



▲ 도쿄 도청에서 바라본 도쿄의 야경



▲ 도쿄의 야경을 배경으로 찰칵 !

도쿄 도청에서 나와 다시 이케부쿠로 향한 후,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이라 그런지 숙소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왠지 아쉬워서, 숙소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패밀리 레스토랑 및 카페 겸인 조나단에 들어가 디저트와 커피를 마셨다. 나는 무제한으로 음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드링크 바와 아이스크림 팬케이크를 시켰는데 두 개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원도 들지 않아서, 일본에서 살아도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



▲ Jonathan에서 먹은 아이스크림 팬케이크

조나단에서 맛있게 먹은 후, 숙소로 향하던 길에 엄청나게 큰 앰불런스 소리와 함께 소방차 4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대학교를 다닐 때 근처에 아주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앰불런스 소리를 들어도 무섭지는 않았는데, 앰불런스와 소방차 총 5대가 한 번에 지나가서 인지 왠지 모르게 너무 무서웠다. 혹시라도 우리 숙소에 불이 났나 싶어 일단 소방차가 가는 길로 뛰어갔는데, 우리 숙소의 5분 거리 근처 빌딩에 아까 봤던 소방차들과 앰불런스가 세워져 있었다. 무슨 큰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 밑에 서있던 경찰 분께 이유를 여쭙더니, 누전이 되어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순간, 어느 나라든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일본은 안전 문제에 정말 민감하고 또, 안전 매뉴얼을 잘 지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여차 저차 놀랜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시 숙소로 향해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에 아쉽게 작별을 고하고, 짐을 챙긴 후 하루를 마무리 했다.

▲ 마지막 날 - 굿바이, 니시 이케부쿠로

마지막 날, 오전 11시가 체크아웃 시간이라 숙소 정리를 하고 나가려는데, AirBnB 호스트분이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해주시러 집 앞으로 찾아오셨다. 비록 일주일이었지만 정든 이 숙소와 항상 친절하시던 호스트분을 마지막으로 봐야한다니 괜시리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웬지 모르게 우리 집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쉬운 마음에 호스트분께 한국에서 가져온 책갈피와 컵라면을 드렸는데 서툰 한국어로 고마워 고마워하시면서 우리가 나갈 때까지 친절하게 배웅해주셨다. 5시 비행기라서 최소 1시에는 출발을 해야했기 때문에 간빠이조와 이케부쿠로 역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하고, 이케부쿠로 앞에서 만나 마지막 돈가쓰를 먹었다. 먹는 내내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좀 더 알차게 보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후회가 물밀 듯이 몰려왔지만 나중에 또 친구와 혹은 교환학생으로 다시 이케부쿠로에 찾아오겠다는 혼자만의 약속을 하고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전철을 타고 일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봤던 그 풍경을 다시 보고 있자니 웬지 고향을 떠나는 듯한 그런 아쉬운 마음과 몽클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에는 친구랑 놀러오는 여행이 될지, 아니면 교환학생으로 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첫 일본 여행에 못해봤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굿바이 도쿄, 사요나라 이케부쿠로!



▲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길



▲ 나리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민경언니와 함께

▲이 글을 마치며

제게 있어 일본은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던 그냥 이웃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던 것은 그냥 오덕후, 애니메이션의 천국, 이상한 나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외현장연구를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저 낯설기만 했던 일본이 어느 정도 익숙한 일본이 될 수 있었고, 일본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짧다면 짧은 6박 7일이었고, 일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일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지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일본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또 일본에 도착해서 세운 계획대로 행동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찾아다니고 배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해외현장연구 수업을 들었을 때 주제를 찾는 것부터가 너무 막막하고 걱정 이었지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배운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도 발전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연구한 주제에 대한 결과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저도 이만큼 할 수 있었고 또, 다음에 비슷한 수업을 듣게 되더라도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절차를 도맡아 해주신 이해란 조교님과, 많이 서툴고 부족한 제가 조언을 구할 때마다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시면서 도움을 주셨던 양한순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본 현장에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획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 해주신 박성빈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해외현장연구는 이번 학기 한번으로 끝나지만, 이 수업을 통한 값진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